

|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새 정부 사회적 대화 복원 첫발

이세종 대외협력실

[인터뷰] 노사정 대표자회의,
노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우태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기획위원

[첨부] 노사정 대표자회의 모두발언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새 정부 사회적 대화 복원 첫발

문성현 위원장

“진정한 대화의 장 함께 만드는 계기 되길”

이세종 대외협력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총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그리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6자 노사정 대표는 1.31.(수) 13:00 위원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7층)에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노사정 대표자는 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데 공감대를 갖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노동3권 보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표자들은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사·정 대표자가 결정하는 사항을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 출범 20년이 되는 해에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책임 있는 경제·사회 주체로서 회의에 참석해 준 노사정 대표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이번 대표자회의가 사회적 대화 기구의 개편을 통해 진정한 대화의 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엄중한 만큼 사회적 대화가 어떤



난관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포스코 협력업체를 사례로 들며, “비정규직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원·하청의 문제,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데 노동계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모처럼 열리는 사회적 대화에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도 “지난 해 촛불 혁명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와 노동3권의 보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런 바람에 역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과거에 대화를 해보면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며, “기업을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짓누른다”고 말했다.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은 “어떤 형태의 대화기구이든 일자리 창출을 우선과제로 논의하자”며,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을 취업시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제일 크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 발전의 패러다임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노사 중심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독단적인 제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민주노총이 참여한 지난 2009년 11월 개최 이후 11년 2개월 만이며, 한국노총의 2016년 2월 불참 선언 이후 1년 11개월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표 간 만남으로 의미가 컸다.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부대표급 회의인 운영위원회와 산하 실무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언제든지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성현 위원장은 대표자 회의 이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겠지만,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임시 기구이므로 오래 동안 논의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1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과

〈1차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과〉

2018년 1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보장,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방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할 의제의 선정,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노·사·정 대표자가 결정하는 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사·정의 부대표급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와 정책 지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운영기간이나 개최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첨부 2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 모두발언록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님, 경총 박병원 회장님,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님, 그리고 오늘 정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까지 배석해 주신 김영주 장관님, 정말 반갑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고 저희들이 넘어온 산과 건너온 강이 높고도, 깊었습니다. 세월로 치면 87년 이후 30년, 경제위기 이후 20년의 세월, 저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자 했지만 부족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찰하고 또 성찰해야 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아쉬움은 성찰하고 저는 미래의 희망과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소득 3만 불, 4인 가족 10만 불, 1억이 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또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이 날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1차적 책임이 노사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업별 노사관계 울타리에 갇혀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입니다.

우리 모두는 촛불혁명을 이룬 위대한 국민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촛불은 우리 노와 사, 정부가 대립과 갈등을 넘어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같이 걸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준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들은 여전히 대립각의 위치에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존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사가, 특히 노조가 중심에 서야 합니다. 노사가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사가 주인이 되는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를 바라는 마음으로 논의의 장을 정부청사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옮겼습니다. 매일이라도 모여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포항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5일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안전사고로 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TCC 한진이라는 곳의 조합원 네 분이 돌아가셨는데 유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유족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으면서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젊디젊은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면서 절규를 했습니다. 또 여섯 살 된 아이는 우리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번 사고는 비정규직의 문제, 장시간 노동의 문제, 양극화 문제, 대기업의 횡포와 원·하청 문제, 위험의 외주화 등 우리 사회와 노동자들의 현주소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위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고 유족에게 소상히 알려야 하며 그리고 포스코 측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노동 존중사회 실현은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가 보장 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노사정 모두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9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를 넘겨 오늘에야 비로소 사회적 대화의 향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의 핵심장치이고 대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넘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사회적 대화의 가장 소극적인 집단은 정부였습니다. 특히 국회 여야 정치권이 합의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합의 결과를 무력화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단기성과 도출에 매달리기보다는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그동안 급박한 상황이나 비상시기에 운영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체계를 오래 끌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월 말까지 정도로 논의시한을 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사정 3자가 뒤늦게 사회적 대화를 시작한 만큼 집중 논의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경제사회 주체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의 의제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과 의제, 업종별위원회 설치 운영,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 노사관계 발전, 산업재해 예방 등 한국사회 대전환 과제 중 의미 있는 것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한 말씀 더 드릴까 합니다. 2월 국회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열리게 될 사회적 대화에 우리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일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한국사회 대전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경제사회의 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정 대화를 복원이라고 해야 할지, 새로이 시작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문성현 위원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김주영 위원장님과 김명환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주영 위원장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사정위가 됐든 아니면 사회적 대화기구가 됐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됐든 간에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집중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1년부터 변함없이 우리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어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사이에 별 성과가 없어서 최근에 기업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주도의 성장을 한다고 할 때, 소득 주도의 성장 효과가 제일 높은 것은 일자리 없는 젊은이들을 취직시키는 것입니다. 내수진작 효과가 제일 큼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나, 양극화 문제들도 청년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대부분이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해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더 걸리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 물론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많은 다른 과제들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다른 문제를 다루면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주 장관님, 문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기까지의 실무를 책임지고 정말 고비 고비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셨던 박태주 상임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하는 동지로서 김주영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기에 민주노총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렵고 긴 시간들이 지나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만남은 11년 만에 회동이라고 회자되었습니다.

19년 만에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원의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노동현장은 이른바 반노동 정책 그리고 반민주적인 지난 시기의 오욕의 역사를 통해서 깊은 고통과 많은 분노로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에 대한 부분들이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한 그간에 한국사회에서의 노사정 대화기구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들러리 역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하는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제 긴 시간을 돌아서 이렇게 대화에 나섰고 또한 수차례 밝혔지만 당당하게 교섭을 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여러 대표자분들께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노사정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촛불혁명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와 시대정신입니다. 사회 양극화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 또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말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 박병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또한 일터의 민주주의가 지금 너무도 절박하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가 바로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난 시기에 이러한 의견을 많이 내고 또한 온몸으로 실천해 왔었던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의제선정, 추진,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무리한 합의보다는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낮을지라도 성과를 만들면서 합의의 수준의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대화는 교섭 구조입니다. 바로 그 노사정대표자회의와 함께 노사정계에 새로운 사회적 물꼬를 트는 큰 마중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노사가 희망하는 분야를 우선으로 해서 산업과 업종의 지역별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바로 초기업단위의 교섭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 지원하는 노사정대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대표자 회의에서 저는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정례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노사정이 3주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노동계도 이러한 대표자회의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함께 이 회의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집행을 담당하는 그러한 적극성을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은 남북이 하나 되는 평화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가 사회 양극화 해소,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서 2천만 노동자들, 8천만 남북 국민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2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들에 역행하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사정의 이런 대화가 충돌보다는, 위기의 2월이라기보다는 기회의 2월,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평화의 2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대화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노사정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위원장께서 나오신 자리는 처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대화라는 생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와 보니 현안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드는 한편 또 기업들마다 처한 상황이나 현실 이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짓누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노사정 대화에 참여해 보면 운영 과정이나 또는 결과에 대해서 보람을 갖게 된 점도 있었지만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다 논의하고 녹여내서 효율적인 사회적 대화의 틀이 될 수 있도록 대한상의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노동이 존중받는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가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입니다.

오늘 1월31일은 참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8개월이 지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참석해 주신 김주영 위원장님, 김명환 위원장님, 박용만 회장님, 박병원 회장님,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님, 참 어렵게 모인 자리면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말 어렵습니다. 3만 불 시대이자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체 노동자들의 23.5%가 저임금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또 한쪽의 동의가 있어야 되듯이 노사가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김주영 위원장께서 포항의 포스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을 중시합니다. 앞서 우려하시는 대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방향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는 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안에 비조직화된 비정규직 노조라든가 노조에 가입이 안 된 노동자들 문제도 저는 이 노사정 테이블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환 위원장님, 김주영 위원장님, 사실 김주영 위원장님께서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이번 대표자 회의에서 '옥동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현안에 머리를 맞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떤 결과를 미리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을 합의해 달라고 안건을 정부가 미리 내놓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안에 맞는 안건, 그리고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골고루 아랫목에 있는 온기가 윗목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뒷바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